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제 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2. 2021년도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3. 환우와 시니어 공동체를 위하여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
5.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6. 사무처리회를 위하여(10/24)
7.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8.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9.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10. 미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위하여
11. 지역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김명신 목사) 위하여
12.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순복음 큰빛 교회 - 김승희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 선교 지역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샤론센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한국선원 선교회
- ▶ 이완구 장학사역

선교 방송 스케줄

- ▶ 코엠TV(채널 257): 매주일 7:25AM
- ▶ 라디오 한국(AM 1450): 매주일 8:30AM
- ▶ 라디오 코리아(어플다운): 매주일 7:00AM

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교회
-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 쿠바(정경석)
- ▶ 니카라과(해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문애희/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 ▶ 터키(이성숙/자슈아)
- ▶ 슬로바키아
- ▶ 헝가리/집시선교(박완주)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 서북미 한인침례교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밀알선교단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정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광일목사

SINCE 1975

2021년 10월 17일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주일예배

장년부 제1부 한어예배 7:40AM / 본당
장년부 제2부 영어예배 9:20AM / 본당
장년부 제3부 한어(통역)예배 ... 11:00AM / 본당
사랑부 예배 (장 애인).....11:00AM / 베들레헴

영아부 예배 9:30, 11:00AM / O-3
유치부 예배 9:30, 11:00AM / 나사렛
유년부 예배 9:30AM / 베들레헴
11:00AM / 나사렛

영어청년/Youth 예배 11:00AM / 안디옥
한어청년 1:30PM / N-201

수요일예배

장년부 한어예배 7:00PM / 본당
장년부 영어예배 7:00PM / 안디옥
영아부, 유치부 어와나 7:00PM / 나사렛
유년부 어와나 7:00PM / 베들레헴

금요일모임

Youth 7:00PM / 안디옥
영어청년 7:30PM / 유스룸
한글학교 6:00PM / 각교실

새벽예배

한어부 월-토 / 6:00AM / 본당
영어부 화-토 / 6:00AM / N-202

CONTACT

Phone: 253.535.5803 Fax: 253.535.2240
Address: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Email: tfbc002@gmail.com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YouTube tfbc

www.tfbc.org

주일에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0

1부 인도: 남궁곤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3부 인도: 전우일 목사

- * 경 배 와 찬 양
- 1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3부: “내 평생 사는 동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예수 피를 힘 입어”

기 도

1부: 인숙탱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봉 헌 찬 양

1,3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공 동 체 소 식

* 성 경 본 문

요한복음 17:21-23

제 목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말 씬 선 포

전우일 목사

* 응 답 찬 송

1,3부: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5)

7. “하베스트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 올해 하베스트 나잇도 COVID-19으로 Drive-thru 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로비 캔디 도네이션 박스에 캔디를 가져다 주시거나 C-Drive로 현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디를 후원할 때는 포장지 뜯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신 캔디는 우리교회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 초등학교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8. 하나님의 VIP 2021년 3기 개강: 11/7(주일) 오후 1시. 새가족실

5주 과정의 하나님의 VIP를 수강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은 로비의 신청서나 교회 사무실에 전화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9. 교회 주차장 내 안전과 운전과 관련 안내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에 귀중품 등을 차에 놓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운전할 때 서행으로 운전하시고 주차할 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자원봉사자 모집 :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데스크의 사인업 용지에 신청바랍니다.

(1)다음세대(유치부, 유년부, Youth, Awana 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2)주차장 안전 요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일예배 때

11. 예수마을모임: 예수마을 모임(한달에 1번)을 각 마을 형편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청지기/돌봄지기께서는 COVID-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수마을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TFBC 예배 캠페인: 교회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다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로 준비하기 (예배 10분 전부터)

2)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기

3) 핸드폰은 진동(무음) 모드로 설정하기

4) 예배 장소 미리 정하고 정돈하기(온라인 예배 경우)

◇ 주중에는 교회 메인 게이트(M번가)를 닫습니다. 데이케어 쪽(84번가) 게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때에는 열어 놓습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중보: James Roberts, Willie Buggs, Leah An, John Zemzars, William Dungey, Kenneth Adkins, Eric Mose, Tom Bayliss, 양레깅스, 신의범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사역자를 만나 교회 등록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ORSHIPPING CHURCH 2021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TFBC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워싱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를 방문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일 2부/3부/유스(영어청년부)/수요성령예배/새벽예배는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계속 제공합니다.
- * 유년부, 유치부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제공합니다.
- * 영아부, 사랑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현장예배 가이드라인

- * 교회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반드시 지정된 자리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로서로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나 가족 중 아프신 분이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 * 예배가 끝나면 신속한 방역을 위하여 본당 건물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세대예배(유치, 유년, Youth) 때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점검, 이름 기록을 하겠습니다.

1. **2021년 교회 표어는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풍성한 찬양과 말씀이 있는 수요성령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강"이란 주제로 누가복음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수요성령예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지난 2주 동안 제 4대 담임목사님 청빙 최종후보자** 목사님 두 분이 방문하셔서 주일 말씀과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Q&A 시간을 갖었습니다. 담임목사 선출과 청빙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이번 한주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부/영어청년 학부모 모임: 10/17(주일) 3부 예배후. 장소: 안디옥**

5. **사무처리회 안내: 10/24(주일) 오후 1시. 본당**

※ 안건 (1) 4대 담임목사 청빙 투표 (2) 2022년 임시예산안 승인

※ **2022년 예산안(가안)**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예산안은 2021년(작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안을 미리 보기 원하는 성도는 교회 사무실(업무시간 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사진촬영과 복사는 안됩니다. 원활한 사무처리회 진행을 돕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있는 경우 교회 대표 이메일(tfbc002@gmail.com)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트루 워십퍼스 12 찬양집회: 11/3(수) 오후 7시 본당**

COVID-19으로 지쳐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클래식 찬양집회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수요성령예배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00/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인도: 전우일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유정옥 집사

제 목 [누가복음 강해/ 평강 40]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2" (주기도문)

성 경 본 문 누가복음 11:1-4

말 씀 선 포 전우일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인숙탱 집사	1부 정자열프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3부 이종덕 집사
	수요 유정옥 집사	수요 채길호 집사
주차장	안전을 위해서 본당 앞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Usher	안내: ①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항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① 당분간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②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이나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찬 봉사	COVID-19으로 당분간 주일 오찬은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날짜	본문	설교자	날짜	본문	설교자
10/18(월)	욥기 9:11-24	남궁곤 목사	10/19(화)	욥기 9:25-35	안재훈 목사
10/20(수)	욥기 10:1-12	전우일 목사	10/21(목)	욥기 10:13-22	남궁곤 목사
10/22(금)	욥기 11:1-11	정주영 목사	10/23(토)	욥기 11:12-20	전우일 목사

※ 새벽예배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제공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 **본문: 누가복음 11:1-4**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 선한 이웃인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부분에서부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상으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누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이미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거의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날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는지?... 왜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했는지 이 질문의 의도와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을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누가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영생에 관한 복 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써 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 전체에서 특별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누가는 처음부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완벽히 승리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삼 년 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히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율법 교사가(단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영생'까지 거론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이 질문안에 구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질문 자체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에 관한 것을 질문 했어야 하는데 행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구원관이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무지한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행위에 관하여 되 물으십니다. '쉐마의 말씀' 즉, "네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행위의 핵심인 '신명기 말씀'에는,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느냐?" 역으로 행위에 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율법 교사와 유대인에게 '행위에 대한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빼앗기고 너무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까지 되어져 길 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이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인 어떤 제사장이 그를 보고서도 서둘러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레위인'도 똑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록한 행위인 '제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율법으로 성별 되어진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 보다도 율법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 위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두 사람은 잘못 한 일이 없습니다. 당시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당연히 지켜오던 '정결 법'이고, 아마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왜 그것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답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의 행위 안에 갇혀 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불쌍한 이웃을 보고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버린 부정한 세대에(자기 모순에 빠져버린 사람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7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참고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 군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눅15:20).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던 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실 때에도 똑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눅 7:13)

다시 말해서, '탕자의 아버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면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 '자비로 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랑의 행위'가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웃에게 가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평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똑 같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받는 것이냐?, 너희의 행위로 증명해 보라"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시험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결국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완벽한 승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실체는, 나에게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피곤한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델로 삼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긍휼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지속적인 정성이 요구되어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돌보아야 할 정도로 피곤한 일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에 시험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인성의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위로 할 수 있는 '참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달려가서 안아주십시오. '잘 왔다'고, 따뜻하게 품어 줄 수 있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참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끝까지 도와 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과 같은 긍휼의 사람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묵상 질문]

1.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2. 율법교사가 말하는 행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내가 긍휼함으로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4. 어떻게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5.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긍휼함의 행위는 무엇입니까?